

제주경제의 성장경로와 신성장동력의 모색

강기춘(姜起春)

(전 제주대학교 교수)

(현 감사원 평가연구원 사회·행정평가연구팀장)

I. 문제제기

지역성장 및 지역발전은 지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모든 지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 특히, 감귤생산의 과잉 및 품질저하, 대체 과일과의 경쟁 심화, 외국산 과일 수입개방 등으로 감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도 해외여행의 자유화 및 소득증가로 인한 여가욕구의 변화로 1993년 이후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경제는 새로운 성장동인의 발굴이나 관광 등 주력산업에 대한 인프라투자, 관광상품의 고품질화 및 차별화 노력을 등한시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성장률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에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되었고,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제도적 기반 부실 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실천전략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출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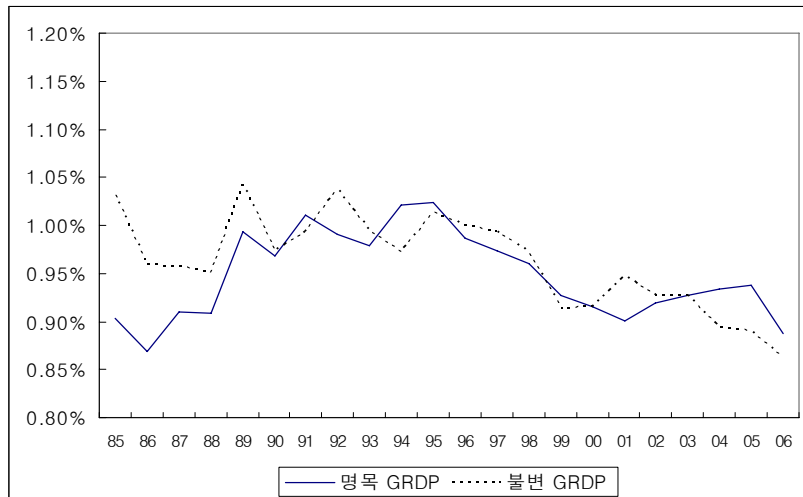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1985년 이후 제주경제의 성장경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주경제가 나아갈 진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제주경제의 성장경로

1. 경제규모 및 수준

지역성장이나 지역발전의 관점에서는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구, 고용, 생산 등의 지표가 많이 사용되는데 본고에서는 생산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사용하였다.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제주지역의 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주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까지는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하향 추세를 보여 2006년 현재 0.89%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제주경제 규모의 영세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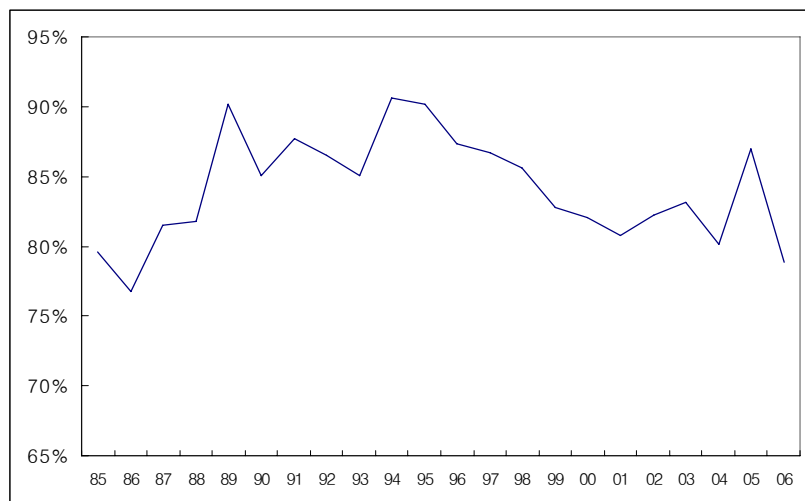
<그림 1> 제주지역 GRDP의 전국대비 비중 추이



한편, 경제발전의 진전에 따라 과밀, 소외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복지나 후생수준의 관점에서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사용된다. Klaassen(1981)은 지역의 소득수준과 성장률을 이용하여 동태적 관점의 지역변동경로를 분석하면서 각 지역은 성장지역→정체지역→쇠퇴지역→잠재적 성장지역→성장지역의 순환과정을 거친다는 지역순환가설을 제시한 바 있고, 허문구(2006)는 우리나라의 1인당 GRDP와 그 성장률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지역순환가설을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의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 또는 대도시 주변지역이 아닌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체지역과 쇠퇴지역을 오가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전국의 1인당 평균 GRDP에 대한 제주지역 1인당 GRDP의 비율은 1985년 80% 수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1994년 91% 수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 현재 7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전국평균 대비 제주지역 1인당 GRDP의 추이



결론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제주지역의 경제규모(경상 GRDP)나 소득수준(1인당 GRDP)은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2006년 현재 제주지역의 경제규모와 수준은 1985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이며, 물가상승을 고려하면(불변 GRDP) 1985년보다 후퇴하여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허문구(2006)의 연구나 1990년대 중반까지 명목 GRDP의 성장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제주경제는 199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의 안정성 및 역동성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제주경제는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 오고 있는데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주 GRDP의 1986-2006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5.7%로 전국보다 0.9%p 낮으나 성장률의 변동성은 6.1%로 전국보다

1.5%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1> 불변 GRDP의 연평균증가율과 변동성 ('86-'06년)

연평균증가율(%)		변동성(%)	
전국	제주	전국	제주
6.6	5.7	4.6	6.1

또한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주 GDRP의 연평균증가율은 9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의 연평균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전국의 연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93-'97년의 경우 -0.9%p, '98-'02년의 경우 -1.4%p, '03-'06년의 경우 -1.9%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그 차이가 확대되었으며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되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전국 연평균증가율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으로는 강기춘(2005)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경제에서 진행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제주경제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제주 및 전국의 연평균증가율 차이

기간	'87-92	'93-'97	'98-'02	'03-'06
차이	0.1%p	-0.9%p	-1.4%p	-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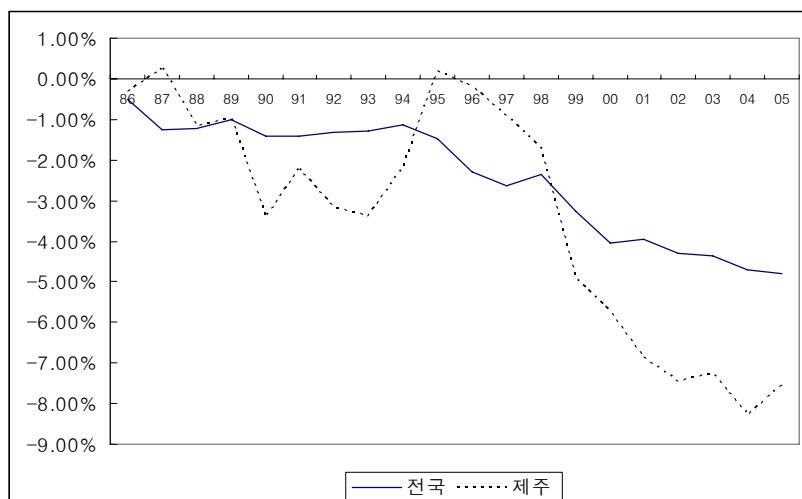
한편, 총산출액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인 총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부가가치율은 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차이가 1995년 최고치인 15.3%p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또한 1985년 대비 연도별 부가가치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은데 1985년 대비 2005년 전국의 부가가치율 하락폭은 -4.8%p인데 비하여 제주지역의 부가가치율 하락폭은 -7.55%p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 부가가치율의 하락 추세는 전국 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제주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쇠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부가가치율 추이('85-'05년)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44.3	42.8	42.8	40.2	40.3	39.9	39.9	39.6	39.5
제주(%)	57.9	54.5	58.1	52.1	51.0	50.4	50.6	49.6	50.3
제주-전국(%p)	13.6	11.6	15.3	11.9	10.7	10.5	10.7	10.1	10.8

<그림 3> 부가가치율 증감 추이(1985년 대비)



3. 산업구조 및 성장요인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및 성장요인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지역성장률격차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제주지역 경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해 보았다(<표 4> 참조). 특정산업의 지역성장률에서 특정산업의 전국성장률을 차감한 성장분을 지역성장률 격차라고 하는데 이 차이는 전국과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차이에 의한 산업구조 요인과 전국과 제주지역 각 산업의 성장률 차이에 의한 경쟁력 요인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산업구조 요인은 지역경제가 특정산업에 전문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부가가치 증가분을 나타내며, 경쟁력 요인은 지역경제가 지니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낸다.

‘98-’06년의 기간 중 산업구조 요인으로 인해 부가가치의 증대가 발생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등이며, 경쟁력 요인이 높은 산업은 운수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주지역과 전국의 명목성장률 격차 요인 분석(‘98-’06)

산업분류	격차(%p)	산업구조(%p)	경쟁력(%p)
전산업	-10.7	-10.1	-0.6
농림어업	-2.0	1.7	-3.7
광업	0.0	0.1	-0.1
제조업	-18.3	-17.2	-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7	-0.8	1.5
건설업	2.4	0.5	1.9
도소매업	0.6	-0.7	1.3
숙박 및 음식점업	3.2	3.6	-0.3
운수업	2.8	0.3	2.5
통신업	-0.2	-0.3	0.1
금융보험업	-1.2	-1.0	-0.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5	-2.1	-0.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2.0	2.0	0.1
교육서비스업	1.0	1.1	-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0.2	0.8
기타서비스업	-0.3	2.8	-3.0

한편,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의 부호를 기준으로 네 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이 모두 양(+)인 경우를 성장유망 산업, 산업구조 요인은 양(+)이지만 경쟁력 요인이 음(-)일 경우를 산업구조우위 산업, 산업구조 요인은 음(-)이지만 경쟁력 요인이 양(+)일 경우를 경쟁력우위 산업,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이 모두 음(-)인 경우를 열위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5> 참조).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 성장유망 산업으로 분류되었고, 제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열위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표 5> 산업구조 요인 및 경쟁력 요인에 의한 분류 ('98-'06)

경쟁력 산업구조	+	-
+	성장유망 산업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 정·국방 및 사회보장, 보 건 및 사회복지사업	산업구조우위 산업 광업,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 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 스업
	경쟁력우위 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통신업	열위 산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지역성장률격차 분석 모형에 의할 경우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 제주지역의 성장유망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부문이며, 한국은행 제주본부(2006)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업, 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산업이며 또한 부가가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이 제주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Ⅲ. 신성장동력의 모색

제주도는 제1차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04-'08)을 통해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지식기반시대 제주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다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관광산업, 청정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등 “4+1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다.

“4+1 핵심산업” 중 관광산업,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 등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하에 추진해 오던 산업이고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산업은 미래형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 없는 성장

(jobless growth)’으로 인해 고용창출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에 적합한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 산업의 취업계수(실질 GDP 1억 원당 취업자 수) 및 취업유발계수(10억 원 투자했을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각각 15.2 및 20.5로 제조업의 4.2 및 12.1 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적절히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제주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제주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경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관광산업,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을 제외한 교육산업 및 의료산업의 추진전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4+1 핵심산업” 외에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1. 교육산업

제주를 동북아 영어교육 중심지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전용 초·중·고 및 외국대학의 유치로 통해 상주인구 증가, 방문객 증가, 해외유학 경비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재유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은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통해 국가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표 6> 참조). 특히 두바이는 대학 집합체인 Knowledge Village(지식마을) 건설을 통해 2006년 현재 12개국 20대 대학을 유치하고 4,0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이렇다 할 만한 대학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목적도 일부 있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주의 교육산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어전용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며 외국대학의 유치는 핵심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나 일본 등에 선점의 기회를 빼앗긴 상태에서는 그들과 차별적인 유치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4+1 핵심산업” 중 관광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또한 역외금융업 또는 청정에너지산업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단과대학이나 학위과정을 선택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6> 아시아 각국의 해외대학 분교 유치현황

국가	주요대학	유치대학 소속국가
싱가포르	인시아드(INSEAD)	프랑스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미국
아랍에미리트	브리티시대	영국
	헤리엇와트대	
	뉴브런스윅대	캐나다
	마하트마간디대	인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러시아
카타르	코넬 의대	미국
	카네기멜론대	
	텍사스 A&M	
	조지타운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중국	스탠퍼드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노팅엄대	영국
	중국유럽비즈니스스쿨(CEIBS,신설)	EU
일본	템플대	미국
	스탠퍼드대	
	남일리노이대	

2. 의료산업

의료서비스는 그 동안 공공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매우 심하였으나 최근에는 고부가가치와 높은 고용창출로 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 언어 등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의료산업의 국제 교역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의료산업에 관광을 접

목시킨 의료관광(medical tourism)으로 의료요양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법인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우수의료기관을 유치하려고 한다.

싱가포르, 태국 등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4년 27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29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실현하였고,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2005년 128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약 9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실현하였다.

의료서비스의 3대 자산으로 높은 의료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 가격, 차별화된 서비스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대 암의 치료기술 수준이 높고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미용성형분야에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싱가포르의 2분의 1 수준이어서 의료관광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태국 등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관광에서 싱가포르나 태국의 후발주자인 제주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주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쟁국과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간 휴양을 즐기면서 건강관리를 받기 원하는 외국의 고소득 은퇴 노인들을 표적시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기술(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4+1 핵심산업” 중 하나인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유헬스(u-Health)를 추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역외금융업

제주도에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자는 구상에 대한 80년대 및 90년대 기존 연구들의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대부분 당시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지금이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종류로는 모든 종류의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종합금융센터, 비거주자 간에 다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예금 거래를 주로 취급하는 역외금융센터, 실질적인 자본유출입 없이 기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역외기장센터, 특정 금융부문에 기능이 특화된 특화금융센터 등이 있으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형은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로 유럽지역, 아메리카 대륙지역, 인도양지역, 남태평양지역, 동남아시아지역 등에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금융국제화 및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역외금융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역외금융센터로 성공한 지역들은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한국채권연구원(2006)의 보고서는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방안에 대한 이전의 보고서와는 차별화된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투입-산출기법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면에서 초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지역소득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며 교육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선박등록 및 선박투자회사 유치를 통해 연 40-50억 원의 역외 세입을 실현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 간에 동북아개발 금융 협력방안을 위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은행의 제주유치 기회가 도래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서 국내외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금융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 그 어느 때 보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제주도 및 유관기관은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국제금융산업이 제주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청정에너지산업

제주도는 에너지 자립이 어렵고 에너지 수급구조가 매우 취약한데 비해 산업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청정 환경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고유가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협약 규제에 대한 대응 등으로 화석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초기투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제주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는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디젤, 지열에너지 등이 있는데 풍력에너지 및 태양에너지와 관련된 국내 기술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72% 내지 87%로 선진국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또한 바람이 풍부한 제주의 자연환경과 청정 환경을 고려하면 풍력에너지 및 태양энер지를 산업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주도는 이미 1981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03년에 행원 풍력단지를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4년에는 한경지역에 풍력단지를 완공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민자 풍력발전 시대를 열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가 마라도에 건립되었고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어 이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2011년까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풍력 및 태양에너지가 제주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간 제주경제의 성장경로를 살펴보고 향후 제주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경제의 성장경로를 분석한 결과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10년’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것은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서 제주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제주경제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식기반시대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능적 사고(functional thinking)를 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하든 우선 목적(what)이 무엇인 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how)을 찾는 것이 기능적 사고이다.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제주도의 목적은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이었고, 그 방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7대 선도 프로젝트, 세계평화의 섬 조성과 평화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4+1 핵심산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산업들이 제주경제의 진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간 연계 또는 융합(convergence 2.0)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을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하나의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컨버전스를 ‘컨버전스 1.0’이라고 하고 이종 산업 간의 컨버전스를 ‘컨버전스 2.0’이라고 한다. 이종 산업 간 컨버전스가 진행되면 개별적인 산업이 채워주지 못하는 다양한 니즈(needs)가 충족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이 재구성된다. 의료산업에 관광을 접목시킨 의료관광이 컨버전스 2.0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4+1 핵심산업” 간에 다양한 컨버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조적 공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와 B의 대립하는 가치를 동시에 취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창조적 공존이라고 하고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인데 ‘함께(and)’와 ‘플러스(+)’가 합성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이익 극대화에 집착한 결과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의료 및 교육시장 개방, 해군기지 건설 등의 문제에서 ‘비타협의 대결 게임’을 고집함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협조적 게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 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춘, (2005), “제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제주도 연구 제26집, 제주학회.
- 강성욱 · 고정민, (2007),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강성욱 · 이성호, (2007), “유헬스(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김성철 외, (2007), 컨버전스 2.0과 비즈니스, 삼성경제연구소.
-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제주특위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7), 제주평화 비전과 평화산업.
- 정선태 · 민덕규, (2007), Knowledge Village in Dubai, 인하대학교.
- 제주발전연구원 · 한국채권연구원, (2006),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선일보, 세계는 창조적 공존으로 간다, 2006년 1월 1일 - 1월 12일.
-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6), 부가가치율 추이가 제주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허문구, (2006), “지역성장과 지역변동경로 분석”, 지역경제분석, 산업연구원.
- Klaassen, Leo H., (1981), “Regional Dynamics”, Netherlands Economic Institute Discussion Paper.